

전남지역 고로쇠 채취 36억 소득

을 볼 전남도내에서 681개 농가가 고로쇠 채취를 통해 모두 3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6년 도내 고로쇠 수액 채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천381㏊, 10만9천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모두 140만㎘(7만8천통)의 수액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2월초부터 4월말까지 모두 681농가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가구당 520만원씩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취량은 지난해의 124만8천㎘에 비해 12.2%, 소득은 35억원에 비해 19억원(2.9%)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현재 전남도내에는 순천 조계산과 광양 백운산, 담양 추월산 등 6개 시·군지역의 1만7천639㏊에 22만4천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

고창 청정 풍력에너지단지 조성

고창지역에 청정 풍력에너지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비 1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전북대학교 차세대풍력발전연구센터와 함께 풍력에너지단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전북대 연구센터는 1년6개월간 계획, 시간, 고도별 풍력자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 대상지는 서해안과 맞닿아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해리, 심원면 등으로 알려졌다.

풍력에너지단지는 에너지 고갈에 대비,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고 동호·구시포 항과 해수욕장 등을 연계해 관광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고창=김준영기자 jwkim@

“영광 굴비 명성 되찾자”

가짜 굴비판매 잇단 적발… 대책 마련 부심

수산물 이력제 도입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최근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 판매 사건이 잇따라 발생, 영광굴비에 대한 신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굴비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관계 기관 및 관련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굴비특 품사업단(단장 윤성중)은 오는 10일 특 품사업단 소속 전체 이사회를 소집해 실 주된 영광굴비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도 10일 오후 7시 전체 회의를 갖고 수산물 이력 제(굴비 가공 이력시스템) 도입 등 원산

지 허위표시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사의 가공처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영광굴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윤성중 영광굴비특 품사업단장은 “최근 특 품사업단 소속 일부 회원사들의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 판매로 인해 영광굴비 제조·판매업체 전체가 원산지 허위 표시업체로 대처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사태를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10일 특 품사업단 소속 전체 이사회

를 소집 실추된 영광굴비 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법성포 굴비보존협회 손상기 사무국장(50)도 “가짜 영광굴비 판매 사태가 굴비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과정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굴비가공 이력시스템 등을 도입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원천봉쇄, 영광굴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는 굴비 관련단체로 지난 1992년도에 설립돼 현재 213개 회원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영어법인 영광굴비특 품사업단과 전통적인 굴비 가공·제조방식을 보존·육성할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립돼 79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영광법성포굴비보존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시인 영랑 국가유공자 신청

강진군, 독립운동·저항시인 등 역할 재평가 작업



거제 대구형부소에서 3개월간 모친 고초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4월 4일 강진을 장날에 전남 최초로 대규모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문화활동에 전념, 시(詩)로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과 민족적 자조를 지었다.

특히 군은 신청조서에서 “영랑은 일제 강점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씨개명을 비롯 삭발과 신사참배 등을 끝까지 거부한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공적조서와 함께 당시 판결문 사본, 독립운동사(제3권)와 삼일독립운동록, 강진 3·1 운동사 등에 수록된 기록 등을 제출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유럽 가는 순창 장류

월드컵 기간 시장 개척단 파견

독일 백화점 시연회·전시·판매

순창장류가 지구촌 축제인 독일 월드컵 기간 중 유럽시장 현지에서 본격 전시·판매된다.(사진)

순창군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프랑크푸르트 칼 슈타트 백화점에서 전통고주장 제조시연과 장류 영상홍보를 상영 및 고주장 요리시식회, 고주장 및 복분자 음료·주스·쨈 등을 전시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전시판매 행사를 위해 군 관계자를 비롯해 청정원 순창고주장을 생산하고 있는 대상(주)의 최정호 공장장, 항원적 등 5개 전통장류제조업체 관계자 등 14명의 독일시장개척단이 7일 독일 현지로 파견됐다.

순창 전통고주장 제조시연은 행사기간 동안 칼슈타트 백화점 2층 매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일 2회씩 제조업체 기능인들이 운영할 예정이며, 방문객들에게 장류홍보물 1만부와 소스고주장,



청국장환 샘플 3천세트를 증정해 순창장류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순창군은 이 기간 중 교민과 함께 순창장류제품을 전세 계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순창장류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을 확보하기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순창군은 이미 지난 4월 독일 현지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바이어 발굴 등 장기적인 수출 기반 조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돌아온 바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강진서 국제친선 축구대회

8월 중 日·中 등 아시아권 8개국 중학생팀 참가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 8개국 중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친선 축구대회가 강진에서 개최된다.

강진군은 한국중학교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 공동 주관, 전남도 후원의 ‘제1회 한국중등(U-15)연 맹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 친선 축구대회’가 오는 8월 강진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한국중등(U-15 : 15세 이하)연맹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친선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한 한국중학교 축구연맹 회장, 정규풍 한국중학교 축구연맹 지부장, 남대식 한국중

교축구연맹 부회장, 황주홍 강진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강진군에서 열린 제42회 춘계 한국중학교축구연맹전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도가 한국유소년 축구의 메카로서 한국축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중학교축구연맹과 함께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아시아축구연맹의 승인이 와료되면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거쳐 오는 8월 24일부터 7일 동안 8개국 유소년 대표팀 250여명이 참가하는 U-15 국제친선 축구대회가 열리게 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9월 9일 공무원 여 경찰직 인증개시

행정직, 세무직, 농업직,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복지직, 기술직

일반경찰, 101단, 승진준비

경찰전문강의 40년

국어(김정진), 영어(이민), 행정법(황우현), 국사(이안행)

행정법(김병관), 동업자(이상민), 복지법(황민관), 교정법(황우한)

● 개강 ●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

금천공인중개사

(011-9600-4563)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11-4565-8011~8025)

(제3당구부 부대인 네임드 사거리)

금보부동산컨설팅

(011-261-8949 ~ 011-602-2223)

(제3당구부 우신사 부동산초등학교 점원)

'팜' 부동산서비스

(제한적 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011-600-0380)

영화 및 미술

제3당구부 출신인

제3당구부 출신인